# '5년새 특교세 최다액 확보'

## 고창군, 광승항 선착장 조성사업 등 26억원 국비확보로 추진 탄력

전북 고창군이 하반기 중앙부처 특별교부세(국비) 26억원을 확보해 현안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광승항 선착장 조성사업(8억원) △온천관광지구 상습결빙 위험구간 현대화사업(5억원) △고창문화원 다목적 체험관 증축(4억원) △서해안 만수 시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6억원) △모로비리공원 진입로 조성사업(3억원)이다.

이는 상반기 11억원(2개사업) 교부된 것에 비해 15억원이나 증가한 셈이며, 최근 5년간 정기교부 중에서도 최다액을 확보했다.

'광승항 선착장 조성사업은'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해리면 광승항에 선착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승항은 마을공동어항으로 어업활동이 활발하지만, 어부들이 트랙터로 직접 어선을 육상으로 올려 정박하는 등 어업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선착장이 조성되면 어선운반으로 인한 불필요한 작업시간이 단축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문제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현재 추진중인 광승항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상습결빙 위험구간 현대화사업'은 급경사와 음지구간인 고창읍 석정온천지구 앞 왕복 4차선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일 평균 5000여명이 지나가는 집중 통행 구간인만큼 관광객, 군민 등 다수에게 사업효과가를 전망이다.

'고창문화원 다목적 체험관 증축사업'은 공간이 협소해 소규모 교육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이용되고 있어 그동안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공연 리허설, 세미나를 위한 다목적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번 증축사업이 완료되면 문화활동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던 군민의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습침수지역 예방을 위한 아산면 부정마을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5억원, 모로비리공원 진입로 조성사업에 3억원을 확보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내장호 주변 개발 ·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박차'

## 정읍시, 2차 용역 보고회… 생태관광자원 · 콘텐츠 개발 등 의견 모아

정읍시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내장호를 시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과업 추진 점검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내장산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내장호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결정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용역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솔티숲·월영습지와 연계해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그동안의 과업 수행 사항에 대한 보고와 향후 용역수행,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1차 중간 보고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사업과 각 사업의 연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또한, 도출된 사업의 숙성과정에서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접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오는 25일 공청회(설명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오는 11월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샘고을중 ·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본격 추진

정읍시가 샘고을중학교·동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가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총사업비 85억원(국비 13, 시비 50, 한전·통신 22)을 투입해 샘고을중학교 통학로 380m 구간을 시작으로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 내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전, 통신 등의 전봇대와 배전선로를 없애고, 이를 지중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통학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연장은 935m이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 구간은 샘고을중학교 통학로인 초산로(거목정 ~ 새봄의원) 380m 구간이다.

초산로 지중화 공사에는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LG헬로비전 등 5개 통신사가 참여하며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초부터는 동초등학교 통학로인 우암로(도미노피자~종삼의원) 555m 구간에 대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가 '2022 비만 예방의 날(10.11)'을 맞아 비만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만병의 근원' 비만 탈출

## 정읍시보건소, '제13회 비만 예방의 날' 홍보활동 전개

정읍시보건소가 '2022 비만 예방의 날(10.11)'을 맞아 비만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읍시 비만율은 33.9%로 전북 31.2%와 전국 31.2%보다 높은 수치다.

비만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장병, 뇌졸중, 제2형 당뇨병, 암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며, 건강에 큰 위협을 준다. 이 때문에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해야 할 사회적 질병으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비만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비만 예방의 날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1일 우체국 광장에서 비만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지방을 줄이자'라는 주제 아래 비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게첨하고, 운동에 대한 동기 유발 등 각종 홍보물을 배부했다.

아울러, 시는 31일까지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좋은 길 추천 챌린지'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체지방분석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영양상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염도 측정기 대여사업도 운영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만이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잘못된 생활방식과 습관을 파악해 일상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군, 농 · 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사업 완료

부안군은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이동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 개조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올해 1월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아 장애인의 소득 기준, 장애 종류·등급,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총 5동을 선정하였고, 장애인 주택 내의 편의시설, 출입로·경사로 설치, 욕실·화장실 개조를 위해 1동당 380만 원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복지 향상에 중점

을 두고 추진하였다.

특히 출입문 및 출입로, 미끄럼 방지 바닥, 욕실 안전 손잡이 등 일상생활의 안전을 높이면서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기에 수혜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지역 소식통

### 부안군의회, 올 행정사무감사 군민의견 접수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2022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군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의견제출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안군의회 홈페이지, 전화(580-4097), 팩스(580-4099),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중 9일간, 제3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안군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의문사항을 감사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서울시 · 경기도의원, 고창군 생활폐기물 시설 운영 배워가

서울시의원들과 경기도의원들이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해 주민갈등 해소 사례를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은 고창군(오세환 군의원)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서울시의원, 경기도의원, 쓰레기센터 대표, 일반인 등 13명이 참여했다. 방문자들은 소각시설 관련 설명을 듣고, 소각시설 중앙제어실에 방문해 쓰레기가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또 소각시설 공론화 과정을 통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한 사례에 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토론을 마치고 방문자들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소각시설과 매립장순환이용 정비사업장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경기초시설 전반을 견학했다.

/고창=김영식 기자